

목록

SSAP 참여 보고서\_20학번 유예슬 유예슬.....1  
SSAP 참여 보고서\_신주희 신주희.....3  
2023-2 ASU 이지수 이지수.....4  
2023-2UOM이정연 이정연.....10  
2023-2UOM오하은 하은 오.....13  
2023-2LCU 이보영 이보영.....15  
★ SSAP 참여 보고서 - 태혜림 태혜림.....18

##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유예슬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학번 교육학과
파견시기	2023학년도 2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
국가	영국
보고서 제출일	2024년 4월 9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사진 첨부 가능) 본 자료는 향후 프로그램 참여 의사가 있는 모든 학생에게 공개됩니다. 이탤릭체로 작성된 안내 내용은 제출 시 삭제해 주시고, 이하 내용 작성 시 폰트 형식이나 크기는 변경하지 말아 주세요. 작성된 자료는 <https://goo.gl/bLPVRK> 로 업로드 바랍니다.]

저는 교육학과 20학번 학생으로 2023학년도 2학기에 영국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이하 Uclan)으로 파견되었습니다. 본 보고서가 교환학생 및 해외교류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있는 학우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Uclan은 영국 중앙 Preston이라는 곳에 위치한 학교입니다. 런던과는 기차로 2시간, 해리포터의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진 에딘버러와도 기차로 2시간30분 정도 떨어진 곳으로 영국 도시를 여행하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근처에는 맨체스터와 리버풀이 있어 축구 경기를 보는 학생들도 많았고 여행 혹은 쇼핑을 위해 방문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맨체스터와 리버풀은 기차에 따라 다르지만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이며 특히 경유를 해서 프레스턴에 도착하는 학생분이시라면 맨체스터는 공항이 있어 입국과 출국시에 꼭 방문하게 되는 도시입니다. 방학기간에 여행을 갈 때도 보통 맨체스터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프레스턴 도시 내에도 쇼핑몰, 영화관, 시장 등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있는 공원도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물가는 런던에 비해 저렴한 편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치솟는 환율과 만만치 않은 외식비용 때문에 식비 및 생활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적응하다 보면 음식을 직접 해먹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은 학교 근처 알디(이마트, 흥플러스;저렴), 테스코(편의점;알디에 비해 비싼 편이지만 신선하고 자체 상품이 많음) 등에서 보게 됩니다. 근처에 아시안 마켓도 꽤 있어서 저는 김치를 많이 사먹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한국음식(라면 등)을 쉽게 찾으실 수 있으니 굳이 한국에서 음식을 많이 가져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간장, 굴소스, 고추장, 쌈장 등 대부분의 소스류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을 좋아하신다면 불력국을 추천드립니다. 참기름, 조미김, 후리카케 까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타 학교의 경우에는 4명에서 최대 9명까지 같은 학교로 파견이 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분들은 기숙사도 같은 플랫(Flat; 영국의 거주 형태로 침실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되 주방과 욕실을 공유하는 형태입니다. 유형에 따라 침실에 개인 화장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에 배정되어 한 학기동안 생활을 같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함께 파견된 분이 계셨지만 그 분은 1년 파견이었고 저는 반학기 파견으로 기숙사가 달라 처음 플랫에 들어갔을 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한국인이 한명 더 있어서 6명 중 2명이 한국인, 나머지 4명은 외국인이었습니다. 플랫별로 분위기가 달라서 함께 파티를 하고 밥도 같이 먹는 플랫도 있는데 제가 있었던 플랫은 대학원생, 의대생, 수의대생 등 늦게까지 공부해야 하는 친구들이 많아 가끔 밥을 같이 먹거나 이야기를 하는 정도였습니다. 대신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이 한명 있어 그 학생과

는 가깝게 지냈습니다. Uclan은 한국어/일본어과가 있어서 한국학생들이 교환학생으로 많이 가는 곳이고, 그만큼 교환학생에 대한 안내가 자세하고 친절했습니다. 프로그램도 많았고 학생들도 익숙해 하는 느낌입니다. 버디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학기에 시작되는 프로그램이라 2학기에 파견된 저에게는 따로 버디가 붙지 않았습니니다. 버디가 있으면 더 재밌고 이것저것 많이 알려준다고 하는데 없어도 재밌게 잘 다닐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많아서 초반에 적극적으로 인사하고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과도 잘 지내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초반에 낯을 많이 가렸는데 지금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격을 바꿀 필요는 없지만 해외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최대한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전공이 교육학과여서 교육학 관련 수업을 듣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한 학기 파견학생이 들을 수 있는 수업이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장 흥미로웠던 “Representation of Education in Literature, Film, Tv, and Social media”를 수강했습니다. 해당 수업은 읽을 자료가 너무 많아 힘들긴 했지만 교수님이 정말 열정적이었고 내용 또한 흥미로웠습니다. 영국의 교육사도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었고 미디어 속에 드러나는 교육에 대한 수업이다보니 평소에 좋아하는 책과 영화 등을 수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마틸다, 해리포터, 스쿨오브락, 죽은 시인의 사회 등 한국학생에게도 익숙한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과제의 분량이 많고 난이도도 높은 편이나 영국의 제도 하에서는 40점 이상만 받으면 되니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간신히 패스한 과목이지만 나름 재밌었고 뿌듯합니다.

다음은 경영관련 강의입니다. 저는 다전공으로 경영학부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도 경영관련 강의를 2개 들었습니다. 교육학 보다는 선택 범위가 넓었지만 저는 예술 쪽 강의를 더 듣고 싶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들었던 강의는 “The Responsible Marketer”, “Destination Management Field Work”입니다. 첫번째 강의는 환경관련 내용을 주로 다룹니다. 프로젝트도 환경영향을 막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의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재미있었습니다. 평소 ESG부문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1교시는 세미나를 듣고 이후 3시간 동안 토론수업으로 이어지는데 아침수업이라 출석이 힘들었던 것 말고는 괜찮았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많이 듣는 수업이기 때문에 토론도 한국인끼리 했습니다. 이 수업 또한 교수님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학생들을 정말 많이 배려해줍니다. 발표 피드백도 가장 꼼꼼했던 수업입니다. 전반적으로 가장 얻은 것이 많았던 수업이라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Destination Management Field Work” 해당 강의는 본래 아이슬란드로 체험학습을 가는 수업이었습니니다만 제가 파견되었을 때 화산폭발 등의 이슈로 인해 갈 수 없었습니다. 대신 영국의 소도시로 여행을 갔는데 나름 재미있었습니다. 수업 내용은 마케팅에 가깝긴 하나 제가 느끼기엔 내용이 명확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학기 중 여행을 갈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 추천합니다. 이 수업 또한 한국 학생들이 많이 수강했습니다. 과제는 여행 기획서 작성과 브이로그 제작이었습니다.

전반적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Uclan은 정규교환이기 때문에 상명대학교 등록금만 336만원 내면 됩니다. 기숙사비는 가장 저렴한 옵션으로 계산했을 때 236만원이었습니다. 비행기는 구매처와 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대한항공 직항을 이용해 240만원으로 비싼 편이었습니다. 그 외 토폴 시험으로 50만원 정도를 사용했고 여기서 생활+여행+쇼핑 등으로 1500만원 정도를 더 사용한 것 같습니다. 금액이 큰 만큼 많이 경험하고 즐기고 자했고 충분히 값어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청 전에 미국과 영국 사이에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다시 선택을 한다고 해도 영국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yeseul\\_567/223149792073](https://blog.naver.com/yeseul_567/223149792073)

\*개인 블로그 주소입니다. 교환학생 신청 과정을 더 자세하게 작성했고 생활에 대한 기록, 여행 기록 등도 업로드 되어있습니다. 블로그에는 편한 문체로 작성하여 해당 보고서에는 글을 긁어올 수 없었습니다.

##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신주희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21 한일문화콘텐츠전공
파견시기	2023학년도 2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UMKC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4.01.1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본인은 2023 2학기 UMKC에 총 6개월간 장학학생으로 파견을 다녀왔습니다. HISTORY, SOCIAL ADVERTISING, FILM 수업 등 총 4가지의 수업을 수강하였으며,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영어를 수월하게 다루는 능력이 생겼으며, 특히 원어민과의 소통을 통해 회화실력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며 미국의 생활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이외에도 UMKC 재학중인 학생들과 기숙사 생활을 같이 하며 다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HISTORY 수업에서는 미국의 역사 뿐만 아니라, 미국이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세계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선사시대부터 중세 유럽까지의 세계사를 배우며 현재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제외하고 새로운 시각에서의 역사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FILM 402 수업에서는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를 활용해 영상을 편집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KANSAS CITY를 홍보하는 영상, 영화 예고편을 편집하여 장르를 바꾸는 영상 등을 직접 제작해보며 영상편집 툴을 다루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실제 연기를 하며 미국과 한국의 문화차이를 설명하는 쇼츠 영상을 제작한 경험이 있습니다. 영상 구상부터, 기획, 촬영, 편집 등의 전단계를 거치며 좋은 영상이 탄생하는 과정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SOCIAL ADVERTISING 수업에서는 마케팅과 관련하여 실제로 교수님과 소통하며 열심히 공부하였고, 15분 내외로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등 팀별 과제도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가상의 앱을 구상하여 팀원들과 함께 PPT를 제작하고 발표하면서 교수님께 영어실력에 대한 칭찬과, 조장으로서의 역할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실제 미국 기업의 마케팅 전략을 배우고 공부하며 더 넓은 견문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창의적 사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FILM 230 수업에서는 흑백영화, 무성영화에서부터 시작하여 2000년대 초반까지 제작된 영화를 시청하며, 영상과 영화, 연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였고, 영화를 감상한 후 Analysis를 작성하여 영화를 분석하며 감상하는 역량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영화의 발전 과정과, 촬영에 필요한 기술 등을 익히고, 실제로 영화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는 ALI 프로그램에 속해 있었지만 토플 점수가 높았고, 이로 인해 영어 어학 수업이 아닌 정규수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학교의 담당자는 ALI 어학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만 activity에 관해 공지를 수업시간에 해주는 등 저는 모르는 활동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한국 학교측에서 이러한 것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정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환학생을 파견하는 것이 끝이 아닌, 학생들이 현지에서 겪고 있는 부당한 대우나, 어려움 등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한 장학교환/어학교환학생이 필수로 참여해야 하는 봉사활동에 대한 부분도 상명대 측의 사전 안내가 없었기 때문에 현지 파견된 교환학생들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필수로 참여해야 하며, 이와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도 개인이 전액부담 해야 한다는 내용을 사전 공지해주시길 바랍니다.

##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이지수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2011172 화학에너지공학과
파견시기	2023학년도 2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Arkansas State University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3년 03월 20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사진 첨부 가능) 본 자료는 향후 프로그램 참여 의사가 있는 모든 학생에게 공개됩니다. 이탤릭체로 작성된 안내 내용은 제출 시 삭제해 주시고, 이하 내용 작성 시 폰트 형식이나 크기는 변경하지 말아 주세요. 작성된 자료는 <https://goo.gl/BLPVRK> 로 업로드 바랍니다.]

### 내용

저는 장학교환으로 미국 남부 아칸소주에 위치한 아칸소주립대학교에 한 학기 다녀왔습니다. 우선 기숙사는 North Park Quad, CP, Reid wolf den 등 여러 기숙사가 있고 저는 North Park Quad에서 살다가 Collegiate Park로 이사를 갑니다. Collegiate Park는 아파트고 North Park Quad는 기숙사인데 방학 기간이나 추수감사절에 NPQ에서 있으려면 추가적으로 돈을 내야하는데 보통 국제학생들은 면제를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돈 내기 전에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NPQ는 1동부터 5동까지 있는데 제가 선택할 때는 동수를 선택할 수는 없었지만 5동은 학교에서 많이 법니다. 1동이 제일 가깝구요. 그리고 저는 이왕이면 CP를 추천드립니다. 친구들 초대하거나 같이 놀기에도 좋고 침대 사이즈도 더 크고 냉장고, 키친도 있습니다. NPQ는 냉장고 없어요! 가격도 더 저렴해요. CP는 2인실, 4인실이 있는데 저는 2인실 2화장실 룸에 거주했어요. 1동이 역시 학교와 제일 가까워서 고를 수 있다면 1동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기간에 여행을 보통 많이 가는데 만약 미국 아닌 캐나다나 다른 국가로 가시게 되면 확인서 같은 거 받아가시는 게 좋아요. 교환학생 중 서류 문제 생겨서 캐나다에 2주 정도 체류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수업은 파견 전에 본인이 하나하나 골라서 신청서에 적어서 담당자에게 전송해야 합니다. 만약 파견된 이후에 수업을 바꾸고 싶다면 본인이 직접 바꾸지 못 해서 OT주에 인터네셔널 오피스 방문해서 Taron 만나서 수업 바꿀 수 있습니다. 첫 주에는 4-5시간 정도 기다릴만큼 국제학생들이 인터네셔널 오피스에 많이 방문하니까 참고하세요. 그리고 시내에 나가는 셔틀을 운행하는데 평일에는 보통 월화목? 4시부터 6시, 토요일은 10시부터 1시 운영했던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시간대 신청하시면 되구요, 차 있는 친구를 빠르게 사귀시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그리고 존즈버러는 드라이존이라서 마트에서 술을 팔지 않아요. 그래서 술을 사려면 차로 한 20분 이상은 나가야하지만 파티에 가면 다른 사람들이 사다놓아서 그거 드셔도 됩니다. 수업 중에 승마 수업, 양궁 수업, 테니스 수업 같이 되게 활동적이고 재밌는 수업 많으니까 수업 리스트 잘 확인해보시고 신청해보세요. 내는 학비 중에 gym 이용료가 한 학기에 300달러 정도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아깝지 않도록 운동도 열심히 하고 클라이밍도 해보고 수업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밀플랜은 all flex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저는 시스템상 오류로 1학년으로 등록되어있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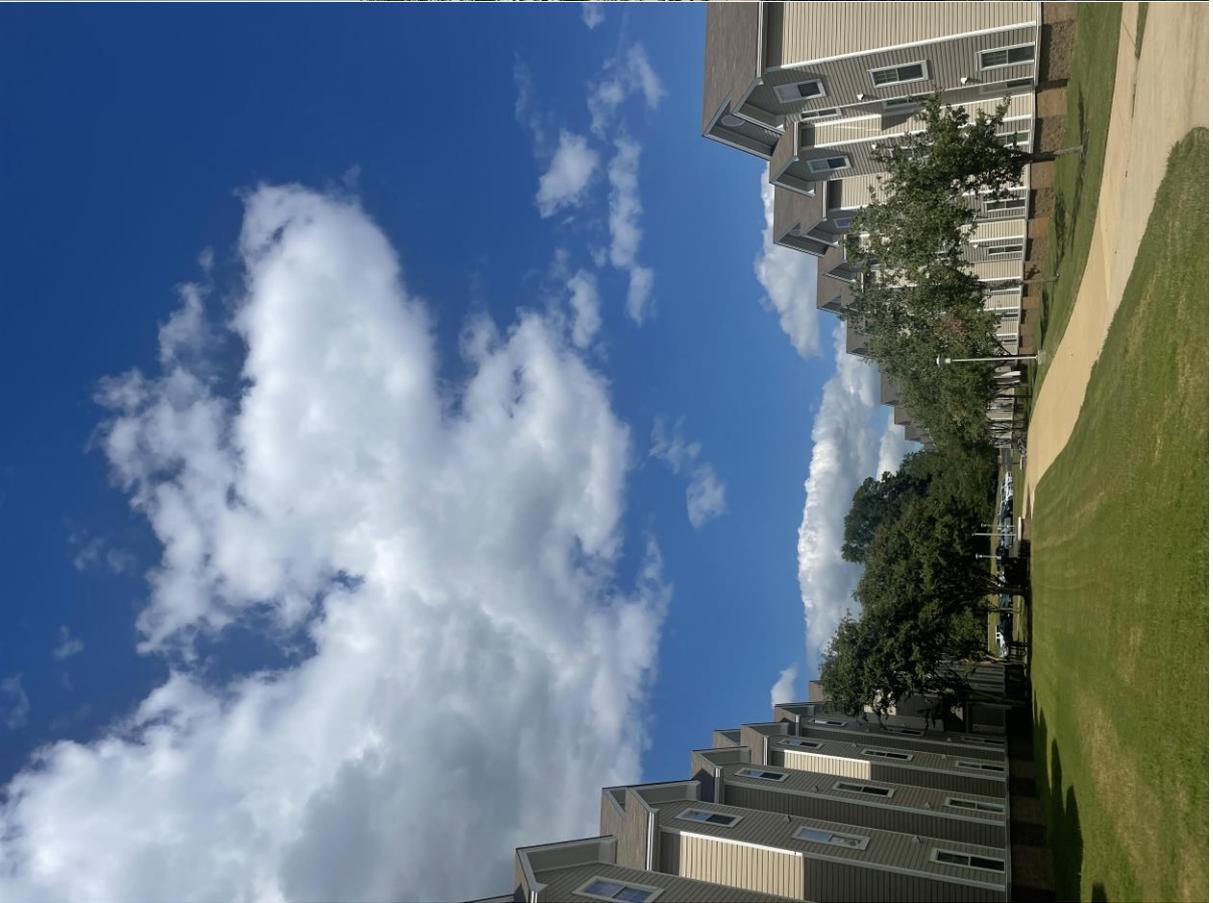
7days로 시켰는데 다이닝홀이 입에 맞지 않으면 돈 아까워요.  
모두 파이팅입니다

[학교 사진]











##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이정연
학번(연도만) 및 전공	19학번 의류학전공
파견시기	2023-2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University of Manchester
국가	영국
보고서 제출일	2024 년 3 월 10 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사진 첨부 가능) 본 자료는 향후 프로그램 참여 의사가 있는 모든 학생에게 공개됩니다. 이탤릭체로 작성된 안내 내용은 제출 시 삭제해 주시고, 이하 내용 작성 시 폰트 형식이나 크기는 변경하지 말아 주세요. 작성된 자료는 <https://goo.gl/BLPVRK> 로 업로드 바랍니다.]

### (1) 파견 대학 정보

맨체스터는 영국에서 2-3번째 큰 도시이며 맨체스터 대학교는 영국의 공립 종합 대학으로 세계 대학 30위권 랭크된 대학으로 수준 높은 수업을 받을 수 있는 대학입니다. 특히 경영학으로 유명한 학교여서 경영학을 전공하는 친구들에게는 더욱 장점이 될 대학교입니다. 또한 대학교의 규모도 크며 특히 공대 건물은 최근에 지어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의류학과 관련된 수업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면 디자인, 제작에 대한 수업보다는 패션 마케팅이나 머천다이징 등 경영에 관한 수업이 중점입니다. 또한 수업시간 외 세미나, 워크숍 등이 있어 좀 더 심도 있게 수업에 대해 공부할 수 있습니다.

### (2) 지역 및 생활 정보

기숙사는 크게 City campus, Victory Park campus, Fallowfield campus로 나뉘어 있습니다. 각 캠퍼스마다 약 6-7개의 기숙사 건물이 모여 있어 학교에서 제공하는 기숙사가 많기 때문에 지원한다면 떨어질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교를 기준으로 시티 캠퍼스 > 빅토리아 파크 > 팔로우필드 순으로 기숙사는 가까우며 기숙사는 flat의 개념으로 학생들이 1인 1방을 사용하며 주방과 거실, 화장실을 공유하는 형태입니다. 제가 머문 기숙사는 팔로우필드에 위치한 Unsworth Park 기숙사였습니다. 팔로우필드 캠퍼스에서는 학교까지 버스를 이용하고 약 20-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캠퍼스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 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고 stagecoach 앱에서 student 티켓을 구매하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1학기 혹은 1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142,143,42A,42B,43 여러 학교를 향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Fallowfield 캠퍼스는 맨체스터 대학교 현지 재학생들이 많이 머무는 기숙사로 파티를 좋아하거나 재학생들과 친해지고 싶다면 선택하기 좋은 기숙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숙사 캠퍼스 내에 스포츠센터가 있어서 저렴한 가격에 운동하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며 기말고사 시험의 경우 해당 스포츠센터에서 보는 경우가 많아 시험기간에 편하게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는 인도음식점이 많아 인도 음식을 좋아하신다면 다양한 음식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반면 city나 victory park 캠퍼스의 경우 파티가 열리는 일은 비교적 드물지만 학교와 시내에서 가깝습니다.

제가 머문 Unsworth Park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해당 기숙사는 가장 최근에 지어진 기숙사로 각 방에 화장실이 있어 flat친구들과는 주방과 거실을 같이 사용했습니다. 약 10명(남자5, 여자5)이 같이 살며 학생들 또한 신입생들이 주로 살기때문에 먼저 다가간다면 금방 친구들과도 친해질 수 있습니다. Unsworth Park 거실과 주방은 공간이 넓고, TV가 있으며 냉장고는 3대, 싱크대는 2개가 있어 주방 이용 시 불편함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커피포트, 청소기, 밀대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며 나머지 물품들은 각자 구매해야 합니다. 특히, Unsworth Park는

팔로우 필드에서 가장 안쪽에 위치한 기숙사로 버스 정류장까지는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팔로우필드 캠퍼스 근처에 Sainsbury's라는 큰 마트가 있어서 기본적인 물품들은 여기서 구매할 수 있으며 해당 마트 안에는 Argos라는 매장도 있어서 인터넷으로 주문 후 Sainsbury's Argos 코너에서 픽업하면 됩니다. 그리고 Unsworth에 사신다면 약 10분거리에 Home bargains라는 마트도 있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 근처나 시티센터에도 다양한 브랜드의 슈퍼마켓이 위치해 있어 어떤 기숙사든 장보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맨체스터의 City centre는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버스로 약 10-15분 정도 걸리며 안데일 쇼핑센터라는 큰 쇼핑센터가 있고, 그 외에도 백화점이나 다양한 숍들이 위치해 있어 쇼핑하거나 외식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또한 근처에 차이나타운도 있어 아시아음식 또한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맨체스터는 영국에서 큰 도시에 속하기 때문에 맨체스터 교통이 잘되어 있는 편입니다. 공항도 있으며, 시티센터에는 기차역도 있어 영국이나 유럽여행하기에 접근성이 좋은 도시입니다. 특히 Rail card 앱을 이용하시면 할인된 가격으로 기차표를 구매할 수 있어 좋은 앱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안의 경우 비교적 안전한 편이라고 생각되며 팔로우 필드 기숙사 캠퍼스 내에는 상주하는 security 직원분들이 있어 밤에 기숙사 캠퍼스가 어두워도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맨체스터 자체가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도시다 보니 다른 지역보다 안전하며 특히, 학교 내는 절도나 강도의 위험 등이 없습니다.

영국은 물가가 비싼 편이라 식사 경우 대부분 장을 봐서 먹는 것이 훨씬 쌉니다. 특히 팔로우 필드 근처에는 외식할 장소가 많지 않고, 한번 식사하면 최소 4-5만원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환학생 친구들의 경우는 점심을 싸와서 학교에서 먹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제 기숙사는 아니었지만 케이터링을 제공하는 기숙사도 있기 때문에 가격을 잘 비교해 보시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영국도 쌀을 생각보다 많이 먹어 쌀을 구하기도 쉽고, 다양한 아시아 음식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근처에 오세오라는 한인 마트가 있어 저는 이곳을 자주 이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기 초 동아리 모임을 하며 저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정말 많은 동아리가 있으며 한국과 관련된 동아리도 있습니다. 또한 한인회가 있어 한인 축구 등 카톡방에 들어가신다면 다양한 정보나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3) 수강과목 및 수업 활동

제가 수강한 과목은 Fashion Buying, Operations Management, Garment Production Technology입니다. Fashion Buying은 1학년 수업, 나머지 두 강의는 2학년 수업이었습니다. 맨체스터의 경우 따로 교양과목의 수업들은 없고, 전공 수업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수업시간 외 세미나, 워크숍 등 추가 수업 시간이 있는데 해당 시간들은 학교측에서 분반을 나눠 자동 배정을 해주어 수업이 겹치거나 일을 하는 등 증명할 사항이 없으면 분반을 변경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또한 세미나와 워크숍은 시기별로 주차별로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시간표가 유동적입니다. 하지만 출석은 매번 체크하지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마 점수에도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강의들은 전공 교수님 + 시간 강사 + 실습 수업 강사 + 대학원생들 다양한 강사 및 교수님들이 수업을 진행하셔서 교수님에 대한 정보를 드리기에 어렵습니다.

Fashion Buying의 수업은 의류업계의 전체적인 트렌드를 공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럭셔리 브랜드와 하이스트리트 브랜드의 옷을 디자인하고, 두 브랜드의 디테일 및 디자인 차이를 제시하여 이를 모두 포트폴리오로 제출하여 성적을 평가받습니다. 피드백 시간이 학기 중 2-3번 있으며, 워크숍이 약 2주에 1번씩 있어 해당 시간에 과제를 진행하면 됩니다. 컨셉개발에 좀 더 심화된 버전의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Operations Management은 의류 운영관리 수업으로 운영 stream에 관한 기초적인 이야기부터 효율적인 재고관리 및 주문량(EOQ), 업무 순서 관리 등 수학적 내용을 다룹니다. 매주 세미나가 있어 추가적인 수업 진행 및 간단한 과제 및 상호작용 수업이 진행됩니다. 중간고사는 보고서 4-5장 분량 보고서를 오픈북으로 진행하며, 기말고사는 2시간 시험이며 파트 a 2문제, 파트 b 2문제 중 각 파트별 1문제씩 골라 풉니다. 문제당 소문제들이 2-4개 정도 있고, 전부 서술형입니다. 또한 계산기를 사용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중간고사 이후에는 수학적 내용이 많이 포함이 되어있으니 수강신청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명대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이라 흥미로우면서도 계산하는 부분은 저도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마지막으로 **Garment Production Technology** 수업은 의류 생산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실습과 이론이 섞여 있는 수업으로 세미나와 워크숍이 모두 있습니다. 재봉은 상명대에서 스커트 제작해보셨다면 충분히 쉽게 느껴집니다. 중간고사는 스커트를 제작하고, 스커트 작지서 및 분석 포트폴리오를 제작하여 제출하고, 기말고사는 **operations management**와 동일하게 시험으로 진행됩니다. 형식은 같으며 시험 내용은 색채 및 소재에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중간고사 이후에는 색채와 소재에 대한 특징, 종류, 빛의 원리 등 심도 깊게 다룹니다. 소재 수업 좋아하신다면 들어보면 좋을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강의 자체가 학생 참여를 도모하는 수업이고, 서로의 의견을 주고 받거나 의견을 발표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4)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가 후 얻은 것

한국 교육 특성 상 영어 스피킹을 할 기회가 적는데 교환학생 생활을 통해서 영어에 계속 노출이 되면서 영어 실력 자체가 늘 수도 있지만 영어로 말을 함에 있어서 두려움을 없애 주는 것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문법 순서를 생각하느라 하지 못했던 말들을 생각없이 뱉어내면서 좀 더 자연스러운 영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대충 다 알아들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보세요. 또한 저희가 평소 익숙해 하던 미국식 발음이 아니라 영국식 발음에 노출되면서 리스닝 실력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쉬웠던 점은 좀 더 회화를 공부하고 갔었더라면 재학생 친구들과도 좀 더 친해지고,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특히 요즘 친구들은 줄임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영어 실력자체를 올리는 것도 좋지만 요즘 학생들이 쓰는 말투나 줄임말을 공부해가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축구의 나라 영국인 만큼 축구 경기를 많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축구를 좋아하신다면 친구들과 대화할 좋은 주제거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맨체스터에서 다른 나라, 지역을 여행하기 좋아 방학이나 주말을 이용하여 다양한 유럽국가나 에든버러, 요크 등 다양한 영국 도시도 방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기말 시험 전 1달 방학 그리고 학기 끝나고 1달 여행동안 약 10개 유럽국을 여행했고, 주말을 이용해서도 틈틈히 파리나 런던, 영국의 다른 도시들을 방문했습니다. 영국의 9월까지의 날씨가 좋으니 만약 영국으로 교환학생을 오신다면 학기 시작 전 날씨가 좋을 때 먼저 여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체스터는 12월 정도가 되면 해가 4시 30분쯤 지고, 다른 유럽 도시들도 춥고 해가 일찍 저 여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8-9월에 많이 여행을 다니면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여행을 하면서도 다양한 인종의 친구들을 만나고,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겪으면서 저는 저 스스로 많이 성장했다고 느낍니다. 때문에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서 언어실력 뿐 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성장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오하은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19 지적재산권학과
파견시기	2023학년도 2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University of Manchester
국가	UK
보고서 제출일	2024년 3월 8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 1. 파견대학 및 도시

제가 교환학생을 다녀온 학교는 영국의 Manchester에 위치한 University of Manchester 입니다. 세계대학순위 중 높은 순위에 랭크하는 대학으로 공대가 특성화되어 있는 학교 입니다. 영국은 대학교가 3년제로 교양수업은 없고 모두 전공수업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술계열 수업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UOM은 중국인 비율이 반정도 됩니다. 캠퍼스가 매우 큰 편이며 버스 정류장 3개가 학교 내에 있습니다. 학교 구내식당은 따로 없고 맥도날드, 서브웨이, 파이브가이즈 등 다양한 프렌차이즈가 있고 학생건물에 저렴하게 판매하는 중국음식점, 샐러드가게 및 건물마다 Meal을 파는 카페도 있습니다. Manchester는 City쪽으로 나가면 쇼핑몰, 프렌차이즈, primark 등 인프라는 잘 되어 있습니다. 런던이랑 비교해서는 할 게 많이 없는 편입니다. 버스타고 조금 외곽으로 나가면 에티하드움 경기장이 있습니다. 비가 자주 오는 편이긴 한데 금방금방 그칠 때도 많고 생각했던 거보다 매일 흐리진 않았고 날씨가 좋은 날들도 아주 많았어요. 영국이 기온은 한국보다 훨씬 높지만 바람이 많이 부는 편입니다.

### 2. 기숙사

UOM은 기숙사 지역 City, Victoria park, Fallowfield 총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건물도 여러 건물이 있어서 기숙사 신청시에 5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City와 Victoria park 지역은 학교바로 옆에 붙어있고 Fallowfield 는 버스로 20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위치해 있습니다. 저는 지망한 기숙사에 떨어져서 Fallowfield의 Oakhouse 건물에서 생활했습니다. Oakhouse는 지망해서 생활하는 친구들은 없었습니다. 화장실, 샤워실, 부엌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이라 겨울에는 방안이 많이 추운편이라 전기장판은 꼭 챙겨가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처음에는 개인 화장실을 신청했었는데 지내다 보니 공용 화장실이 더 나은 거 같다고 느꼈습니다. 개인 화장실은 본인이 직접 청소를 해야 하는데 건식 화장실이다보니 관리가 어려운 거 같았습니다. 공용 화장실은 여자 4명에서 써서 기다려야 할 때도 전혀 없었고 일주일에 두번씩 클리너가 청소를 해주십니다. 부엌은 8명이 같이 써야해서 동시에 3명이상이 쓰기에는 복잡한 크기입니다. 제 플랫은 입주자가 1명 없어서 7명에서 생활했습니다. 같은 이름의 건물당 리셉션과 세탁실이 하나씩 있습니다. Fallowfield는 거의 동양인이 없었고 제가 살았던 플랫에는 저 빼고는 모두 영국인 친구들이었어요. Fallowfield는 파티가 많고 시끄러운 지역이라 플랫에 따라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방음이 거의 안되기 때문에 새벽까지 매우 시끄러울 때가 많아서 기숙사 신청할 때 고려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플랫친구들을 잘 만나서 같이 놀러도 다니고 할로윈이나 크리스마스에 부엌에서 다 같이 요리해먹고 게임도 하며 좋은 추억 많이 쌓았습니다. 9월학기에 가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기숙사 방이나 복도에 걱정했던 벌레나 쥐는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1학년 현지 학생들은 파티가 많이 열리고 친구 사귀기 좋기 때문에 Fallowfield지역을 선호함

니다. 교통비나 인프라를 생각하면 교환학생이 지내기에는 city, Victoria park 지역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3. 수업 및 활동

영국으로 가기 전 한국에서 수강신청 진행했습니다. 자매대학 담당부서에서 연락이 오면 홈페이지에서 전공계열과 영어성적에 맞는 수업 찾아서 신청했습니다. 저는 모두 정규수업으로 3과목 수강했고 강의시간이 나중에 공지되기 때문에 혹시 시간이 겹치거나 하면 개강 후에 이메일이나 담당부서를 직접 찾아가서 정정신청을 해야합니다. 한 과목마다 강의시간, 세미나시간, 워크샵시간이 따로 있어서 시간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 과정이 번거롭고 시간이 매우 오래걸리는 편입니다. 저는 1,2학년 수업을 둘 다 신청해서 더 그랬던 편이어서 가능하면 같은 학년의 수업만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교환학생은 최대 60credit 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엘츠 성적으로 지원했는데 대학 입학 조건은 6.0으로 알고있는데 수업마다 요구하는 아이엘츠 성적이 다르고 7이상이 대다수였습니다. 성적은 받을 수 있는 만큼 높게 받아서 가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개강 전주와 개강 주에 진행됩니다. 여러 동아리 활동이나 movie night 같은 행사도 진행합니다. 학생건물에서 빈티지마켓이나 포스터, LP, 식물 마켓도 자주 진행해요. 메일로 매주 이번주에 진행되는 행사와 활동을 보내주기때문에 참고해서 참여하면 됩니다.

### 4. 생활비 및 교통

물가는 파운드를 사용하다 보니 환율이 많이 높은 편입니다. 외식비는 런던에 비해서는 조금 저렴하지만 그래도 한끼에 외식하면 인당 평균 25파운드 이상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환학생이나 학생들 대부분 장봐서 해먹는 편입니다. 마트가 학교근처, city안에도 많고 Fallowfield에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Sainsbury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식료품은 한국보다 저렴한 편이어서 해먹으면 식비는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학교근처에 한인마트도 있어요.

Fallowfield기숙사 지역만 유일하게 학교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서 저는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도보로 50분정도 걸리는 거 같습니다. 거의 모든 버스가 학교를 가서 배차를 걱정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침에는 줄이 좀 있는 편입니다. 정류장은 기숙사 바로 맞은 편에 위치해 있어요. Stagecoach 버스 앱으로 6개월권을 사는 것이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에 정기권을 사서 사용했습니다.

### 5. 후기

외국에서 대학생활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대학생신분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되돌아보면 정말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떠나는 날 무척 아쉬웠어요. 저는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먼저 다가가서 친해지고 활발하게 다가가지 못했는데 그래도 기숙사 친구들 이랑 잘 친해질 수 있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영어공부 열심히 하고 가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현지인이 말하는 속도도 생각보다 훨씬 빨라서 처음에는 알아듣기 힘들었어요. 내가 나서서 말하지 않으면 영어를 말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가기만 한다고 영어가 늘지는 않는 거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 더 깊게 얘기하지 못했던 점이 아쉬웠어요. 6개월이 생각보다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해볼 수 있는 거 최대한 많이 해보고 여행도 많이 다니시면 좋은 경험 많이 쌓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이보영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19 / 프랑스어권지역학전공
파견시기	2023학년도 2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LYON CATHOLIC UNIVERSITY
국가	프랑스
보고서 제출일	2024년 02월 26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 -학교

일단 프랑스 리옹 카톨릭 대학 파견은 대학교로 들어가서 프랑스 친구들이랑 같이 수업을 듣는 게 아니에요. 대학교 부설시설인 ILCF(어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거라 프랑스어를 배우러 온 각국의 친구들과 같이 공부해요. 저는 프랑스어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개강하기 전에 각자 온라인 시험을 보고 반이 정해져요. 학기마다 다르겠지만 각 반에 대략 15명 정도인 것 같아요. 반은 오전반(8:00 ~ 12:00)과 오후반(13:00 ~ 17:00)이 있어요. 오전과 오후를 바꾸고 싶을 땐, 그 시간대에 일한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바꿀 수 있어요. 수업 들어보고 더 높은 반 혹은 더 낮은 반으로 옮길 수 있지만 오전/오후를 선택할 수 없어요. 월~금 4시간씩 수업이 있어요. 수요일은 오후반과 오전반 모두 오전반으로 다른 선생님들과 수업해요. 이전 교환에서는 수요일 수업 과목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 했는데, 저희는 선택 없이 자동으로 반이 배정됐어요.

선생님들은 반마다 다르지만, 제가 만났던 모든 선생님들은 열정적이었고, 저는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어요.

시험은 중간, 기말이 있고, 기말 비율이 70%라 기말은 정식 델프 시험처럼 보고, 중간고사는 기말보단 캐주얼하게 보는 편이에요. 그래도 기말시험을 잘 보려면 중간고사 준비도 잘 해야 해요 ㅎㅎ

학교가 Perrache역 바로 앞이라 Flix 버스, TGV, 메트로 타기 편리해요. 그리고 도보로 Bellecour, Vieux Lyon, Confluence 등 리옹 관광지로 유명하고 번화가인 지역들을 갈 수 있어요.

### -학교 활동

ILCF에 다니는 학생들은 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국제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리옹 투어 프로그램, 오케스트라 관람 프로그램, 각 나라 음식을 만들고 나눠 먹는 행사, 크리스마스 바스켓 행사 등 나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는 선착순 마감된 프로그램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리옹에 한국어를 배우는 프랑스인들이 많고, 한국어 학과가 있는 대학교도 있어서 같이 만나는 자리가 한번 있어요. 서로 관심사가 같기 때문에 친해지기 쉽고 따로 만나서 놀 때도 재밌어요. 이 행사도 꼭 참여하시길 바래요. 학교 프로그램에서도 새로운 친구들 많이 사귄 수 있으니 참여하세요!

만약에 가서 학생증 만들었다면 꼭 학교 매점 할인, 학교 주변 할인(학생증 보여주면 할인해 주는 매장들이 있어요) 받으세요.

### -기숙사

저는 St.Bernard에서 머물렀어요.

-장점

1. 지하에 작게라도 헬스장 있어요.(생로랑X -> 대신 여기 헬스장 이용 가능)
2. 매일 공용공간 청소해줘요.
3. 0층에 같이 공부하거나 얘기할 수 있는 방들이 있어요.
4. 아끼에가 거의 24시간 상주해있어서 택배 받아주고, 궁금한 점을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어요.
5. 세탁기 3대, 건조기 3대가 있고, 어플로 결제 가능하고, 세제가 자동으로 나와서 구매할 필요 없어요. 세탁은 3유로, 건조는 1유로고 한번 충전할 때 최소 8유로 충전해야 해요.(생로랑은 1개씩이고 코인을 넣어야 하고 세제도 따로 넣어야 해요. 대신 더 저렴)
6. 기숙사에서부터 교실까지 뛰면 10분 가능해요. 제가 해봤어요 매일 ^\_^v
7. 언덕이 생로랑보다 낮아요.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
8. 접시, 포크, 숟가락, 컵 등 기본 식기는 제공해줘요.(냄비, 도마 등X)
9. 화장실이 방 안에 있어요. (생로랑은 공용 화장실이고 방 안에 싱크 있어요. 남녀 공용 아님)
10. 엘리베이터가 있어요.(올라가기만 가능, 밤 10시 이후 사용 불가)
11. 기숙사 위치가 Perrache역이랑 가깝고, 비우리옹 바로 옆입니다! 위치가 아주 좋아요.
12. 0층에 자판기가 있어요.

-단점

1. 생로랑보다 월세가 비싸요.(Bernard는 월 572유로입니다\_23년도 기준)
2. 외부인은 오후 10시 이후에 나가야 해요.
3. 기숙사 행사가 많이 없어요.
4. 주방이 밤 12시에 닫혀요.
5. 히터가 자꾸 꺼져서 겨울에 방이 추워요. (생로랑은 더워서 창문 열어야 될 정도)

-생활 및 용품

생활용품은 까르푸, 2유로샵, Normal. 음식은 품목마다 다르지만 리틀, 까르푸, 모노프리가 저렴해요.

한국 라면, 식재료는 기우띠에에 있는 Supermarché International이 가장 저렴해요. 그리고 더 많은 한국 음식이 먹고 싶다면 Hôtel de ville 근처에 있는 Ace Gourmet에 가세요. 일본이랑 한국 마트라 비싸지만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자주 가는 마트 멤버십 만드세요! 저는 까르푸 만들어서 나중에 할인도 받고 했어요. 통신사는 Free 사용했고, 저는 한국 문자 인증할 일들이 있어서 e심으로 구매했어요. 그리고 프리 계약일이 예를 들어 5일까지면 사실 4일에 끝나는 거라 그 전에 연장하고 돈 지불해야 해요. 하루라도 늦게 지불하면 추가 돈 붙으니 꼭 돈 넣으세요ㅏㅏ

한국에서 가져오면 좋은 물품 : 전기장판, 프랑스에서 쓰고 버릴 수 있는 물건들(빗, 마스크팩, 양말, 공병, 스타킹, 잠옷, 불닭 소스, 전자레인지용 통, 김, 비오킬, 미니 우산, 핸드폰 케이스 등 -> 자잘하게 돈 나갈 거 막고 좋아요.), 충전기 여분 줄, 기내용 캐리어, 백팩, 트레블월렛 카드

안 가져와도 괜찮다 : 방충망, RFID 방지 힌색, 너무 많은 한국 음식, 너무 많은 상비약 등

-그 외

프랑스 가기 전 준비가 가장 바쁜데 그 중에서도 비자 헛데부!!! 이 헛데부는 가능한 빨리 잡으시고 블로그 후기도 보시면서 준비하세요. 예약 잡기가 어려워서 출국 날짜 계획 세우고 바로 사이트 들어가서 잡아야 해요.

네이버 해외 로그인 풀기, 핸드폰 문자 수신 정지, 국제학생증 발급, 보험, 주택 보험, 통신사 개통 전 까지 쓸 e심/로밍 등 한국에서 끝내고 가야 하는 일처리들 꼭 끝내고 가세요.

마지막으로 꼭 가져와야 한다, 준비해야 한다 하는 건.. 프랑스어 실력과 영어 실력, 체력,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겠다는 마음가짐, 그리고 돈 입니다! 영어든 프랑스어든 잘하면 잘할수록, 체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좋아요.

저는 열심히 돌아다니고, 공부하고, 놀았다고 생각했는데도 마지막에 너무 아쉬웠어요. 많이 구경 다니시고 놀러 다니시고 공부하다 오세요! 저는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을 만큼 좋았어요. 타지 생활 걱정 마시고 화이팅!

##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태혜림
학번(연도만) 및 전공	19학번 글로벌지역학부
파견시기	2023학년도 2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리옹카톨릭대학교
국가	프랑스
보고서 제출일	2024년 2월 21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 준비과정

: 캠퍼스 프랑스 면접부터 비자 발급까지 전부 개인이 준비해야 합니다. 면접 예약 잡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기숙사

: 4개월 거주 기준 월세는 572유로였습니다. 작은 방 안에 침대, 책상, 의자, 냉장고, 옷장, 화장실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사용 가능하며 올라가는 것만 가능합니다. 저는 5층에 살았는데 날이 갈수록 무릎이 안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0시가 되면 문이 잠기지만 벨을 누르면 열어주기 때문에 통금은 딱히 없습니다. 공용주방에 냄비와 프라이팬이 구비되어있지만, 설거지를 제대로 안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주방 사물함에는 접시/유리컵 4개, 숟가락/포크/ナイ프/티스푼 각각 2개씩 들어있습니다.

### 학교생활

: 학교에서 레벨테스트 안내 메일을 보내줘서 출국 전 레벨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그룹은 20그룹까지 있습니다. 성적은 중간고사 30% + 기말고사 70% 반영되며 출석점수가 아예 0%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매일 출석체크를 하시긴 합니다.

정규수업은 월화목금입니다. 수요일은 선택수업인줄 알고 갔는데 올해부터 바뀐 건지 선택권 없이 전부 말하기와 쓰기 수업을 했습니다.

교환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는데 대부분 선착순 마감이라 공지가 뜨면 빠르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저는 4개정도 참여했는데 프랑스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다른 나라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 일상생활

: 리옹은 살기 좋은 도시 같습니다. 단점은 오후 8시가 넘으면 모든 가게가 문을 닫아 갈 곳이 없습니다. 또 일요일에는 마트 포함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습니다.

여러 후기들을 보고 한국에서 이것저것 많이 사갔는데 프랑스도 다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비싸지만 웬만한 것들은 다 있습니다. 자잘자잘한 것은 다 빼고 바지를 많이 챙겨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유럽인의 다리는 한국인 명치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키가 175 이상인 분들을 제외하고는 바지를 구매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한 학기 동안 유럽여행도 많이 하고 좋은 친구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날씨와 체력 때문에 더 돌아다니지 못한 것이 후회됩니다. 이 후기를 보시는 분들은 꼭 하루도 빠짐없이 리옹은 물론 유럽을 많이 돌아다니시고 여행하셔서 아쉬움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